

미야모토 유리코의 『한 송이 꽃(一本の花)』론

朴裕美*

(e-mail: sabinaz@hanmail.net)

目次

1. 시작하며
 2. 섹슈얼리티의 자각
 3.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4. ‘생존의 침단’이 의미하는 것
 5. 마치며
-

1. 시작하며

17세의 나이에 일본 농촌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貧しき人々の群れ)』를 발표하며 인도주의작가로 출발한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¹⁾는 소비에트 여행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전환하게 된다. 작품 『한 송이 꽃(一本の花)』은 그녀 인생의 대전환점이 된 이 여행 직전인 1927년 12월 『개조(改造)』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한 송이 꽃』은 사회주의로 경도되기 전의 마지막 작품으로, 여성주의적 색채가 강한 유리코 문학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유리코가 작가생활 초기부터 추구해온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당시 유리코는 아내로서의 생활을 버리고 독립한 여성으로 살고자 러시아 문학가인 유아사 요시코(湯浅芳子)²⁾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송이 꽃』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1)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1899-1951)는 大正와 昭和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한 대표적 여성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자리 매김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치이념이나 사회주의와 관련된 평가만을 주로 받아왔다. 그러나 유리코 작품의 중요 테마의 하나로 근대라는 정치·사회·문화적 격변기에 여성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페미니즘 담론에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은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유리코는 자신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의 과정을 담은 『노부코(伸子)』를 통해 어느 정도 작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고 이후 비교적 원활하게 작품 활동을 하나, 오히려 이러한 원활함의 반복이 작가로서 회의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한 송이 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작가 역시 “3년 남짓 이어져 온 여자끼리의 생활에 미묘한 단조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이 쓴 작품 세계에도 의문을 품기 시작한 시기”에 쓰인 작품으로 “『한 송이 꽃』에는 이러한 동요가 잘 드러난다”³⁾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리코는 『한 송이 꽃』에 대해 “작가생활 전반기에 종지부를 찍은”⁴⁾ 작품이라고 평하는데, 이 작품이 작가로서 회의를 품었던 시기의 마지막 작품이자 소비에트 유학으로 비약하기까지의 과도기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여주인공 아사코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나 아사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사코 자신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작가도 알지 못했다”⁵⁾는 유리코 자신의 표현처럼,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어렵듯한 자각과 동요가 작품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요와 자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한 주인공 아사코(朝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즉, 아사코 안에 감추어져있던 여성성과 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각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의 이야기가 교차될 뿐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 뒤섞이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결합이야말로 주인공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관점에서 작품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주인공이 마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생존의 첨단(生存の尖端)’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2. 섹슈얼리티의 자각

『한 송이 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작품이

2) 『한 송이 꽃』에 등장하는 사치코(幸子)의 실제 모델이다. 러시아 문학가로 유리코가 이혼한 직후부터 공동생활을 하였으며 유리코가 소비에트로 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3) 『宮本百合子選集』 第四卷 後記(河出書房, 1956) 인용은 『宮本百合子全集』 第十八卷(新日本出版社, 1981) p.41 .

4) 위의 책 p.41

5) 위의 책 p.41

다.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이성과의 에로스에 끌린다고 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인공 아사코는 여성단체의 기관지 편집을 맡고 있는 여성으로,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현재는 여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치코(幸子)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각자 일을 갖고 자립한 여성끼리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성의 동거는 이미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사코가 육체적 관능에 눈뜨면서 이상으로 여겨지던 두 사람의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사코가 남편을 잃은 것은 스물네 살 때였다. 그녀는 요즘 들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남편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안에 채 피지 못하고 있던 여성의 꽃이 피어났다.

만약 지금까지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자신은 이와 같이 섬세하게 될까 나무 싹이 자라나는 걸 지켜보기라도 하듯이, 마음과 관능의 성장을 자신이 느낄 수 있었을까. (중략) 여성의 성장 —— 자연은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든 없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41)⁶⁾

“여성의 꽃이 피어났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송이 꽃’은 여성으로서의 관능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주인공 아사코의 메타포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여성성은 여성이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여성성 안에는 성욕이나 열정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결혼과 가족으로 제한되었으며 여성이 성적 쾌락에 대해 말하는 것은 터부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아사코는 이런 여성성을 “때가 되면 꽃을 피”우듯이, 여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미 결혼생활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뒤늦게 자신의 육체가 갖는 관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스스로가 결혼생활 중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데서, 부부생활이 오히려 그녀의 자연스러운 여성성을 억압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6) 본 논문은 「一本の花」 『宮本百合子全集』第四卷(新日本出版社, 1981)를 텍스트로 했으며, 작품인용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한다. 인용문 끝의 () 안의 숫자는 본문의 쪽수를 나타내며 번역은 필자에 의한다. 인용문의 원문은 각주로 처리한다.

「朝子が夫を失ったのは二十四のときであった。彼女は近ごろになって、もと知らなかった多くのことを、男女の生活について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彼女の中に、半開であった女性の花が咲いた。もし今まで結婚生活が続いていたら、自分はこのように細かに、何か木の芽でも育つのを見守るように心や官能の生長を自分に味わうことができたであろう。(中略) 女一人の生長——自然はその女が夫もっていようとまいと、そんなことに頓着はしていない。時が来れば、花をさかせる。」

아니라 “지금까지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성을 자각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통해 결혼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남녀의 결합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40대 작가부부에 대한 아사코의 표현에 의해 뒷받침된다.

봄이 되면 향시 정원에 히아신스나 수선화가 만발한다고 했다. 그런 꽃들에 둘러싸여 점점 병적으로 되어 갈 부부의 생활을 상상하자 아사코는 퇴폐적인 그림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 역시도 부부생활의 타성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늙인지 아사코는 죽은 남편과의 짧은 부부생활을 통해 알고 있다. (22)⁷⁾

수필 원고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작가의 집은 맨드라미, 백일홍 등 화사한 꽃들로 가득 차 마치 용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에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병적인 모습은 작가의 ‘불면증’과 아내의 ‘히스테리’로 표현된다. 중년의 작가부부와 대면하면서 아사코는 타성이 지배하는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를 느끼며 자신이 남편과 보냈던 짧은 결혼생활 역시 중년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생활의 타성’⁸⁾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제도로서의 결혼은 정신적 사랑이 아닌 습관적인 육체적 열망이라는 타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퇴폐적인 그림’이라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는 남녀 사이는 모두 어딘가 뒤틀린 관계로 묘사된다. 아사코가 일하는 부인단체의 실권자인 모로토(諸戸)는 아내와 자식을 고향에 두고 혼자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여학교의 교장과 특별한 관계이며 장래 그 학교는 모로코의 소유가 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사업 소속의 여성 두 명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편 아사코는 일관계로 인쇄소에 갔다가 여사환이 사장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 늙은 사장이 그녀를 성추행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7) 「春になると、庭へ、ヒヤシンスや馨水仙が不斷に咲き満ち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それらの花に囲まれ、ますます病的であろう夫婦の生活を想像すると、朝子は頹廢的な絵画を眺めるような気分を感じた。彼等のところにも、夫婦せいかつの惰力が強く支配している。それがどんな沼か、朝子は、彼女の短い亡夫との夫婦生活で知っている。」

8) 유리코는 결혼한 지 반년 후 일기(『『伸子』時代の日記』、多喜二・百合子研究会, 1978) 속에서 자신 속에 ‘영적 사랑’과 함께 ‘육체적인 강한 열망’을 느끼며 때에 따라서 그것은 ‘정욕’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체적 열망’에 비례할 만한 ‘영적 사랑’을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게 되자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영적 사랑’이 배제된 타성에 젖은 자신의 결혼생활을 ‘수렁에 빠진 시절(泥沼時代)’이라 칭하였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 아들은 이를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아사코는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듯 정신을 배제한 육체적 관계에 그치는 남녀관계에 비한다면 아사코와 사치코는 육체적 쾌락을 배제한 순수하며 영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사코와 사치코의 동거생활은 여자가 구속되는 제도적인 남자와의 결혼생활과는 달리 각자 일을 갖고 자립하는 여자끼리의 대등하게 열려진 자유로운 생활공간을 바란 결합관계였다. 그런데 이런 여성의 연대적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오히려(大平)라는 이성으로 인해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아사코는 자신의 감정에 놀라면서 생각했다. 사치코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생활해 나가는 것에 대해 아사코는 진실로 불평이나 거부할 이유를 마음 어느 한 구석에도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뜨거운 힘은 이상하게 매혹적으로 끌어당겼다. 진공상태처럼 빨아드린다. 아사코의 전신이 그곳을 향해 오로지 추락하고 싶어 했다. 그런 발작과 같은 순간, 아사코는 자신의 육체 속에서 커다란 꽃잎이 소용돌이치며 피어나 소리 없는 외침으로 마음에 밀려들듯이 애절하게 느껴졌다. (42)⁹⁾

이 작품의 해석에 있어 두 여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 남성의 출현에 의해 야기되는 두 여성의 균열이 마치 이성애에 의한 동성애의 흔들림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사코는 사치코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치코의 어떤 사소한 버릇도 알고 있었으며 결점도 그리고 아름답고 선량한 점도 알고 있었다. 사치코가 짜증을 내며 (중략) 너무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사코에게 덤벼들었다. 그때의 정말이지 보기 흉한 사치코의 표정을 생각할 때조차 아사코는 골계와 행복을 느끼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42)¹⁰⁾

“아사코는 사치코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보통의 우정을 뛰어넘는 깊은 애정을 느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9) 「朝子は、自分の感情に愕きつつ考えるのであった。幸子といて、互いに扶けつつ生活を運んで行くことに、朝子は真実の不平や否定の理由を、心のどこにも持っていなかった。

それなのに、その熱い力は異様に牽きつける。真空のように吸いよせる。朝子の全身がそこへ向ってひたすら墜落することを欲した。その発作のような瞬間、朝子は自分の肉体の裡で、大きな花卉が渦巻き開き、声なき叫びで心に押しよせるように切なく感じるのであった。」

10) 「朝子は、幸子を愛していた。彼女は幸子のどんな些細な癖も知っていたし、欠点も、美しき善良さをも知っていた。幸子が癪癪を起し、(中略)、とても怖い顔をして朝子に食ってかかる。そのときの、世にも見っともない幸子の顔付を思い出してさえ、朝子は滑稽と幸福とを感じ、腹から笑うことが出来た。」

없어 보인다. 때문에 두 여성의 관계는 동성애, 동성애적 감정 등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혼다 슈고(本多秋五)는 아사코와 사치코의 감정을 ‘동성애적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 간의 감정적 교류가 이성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성 간에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적결합을 지향하는 동성애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¹⁾ 또한 이와부치 히로코(岩淵宏子)는 아사코의 심층에 사회에서 이단시되는 동성애를 둘러싼 다양한 고통이 있으며, 아사코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요는 이에 기인한다고 논하고 있다.¹²⁾

사회의 성규범은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애를 절대시할 뿐 아니라, 근대의 가족제도에서 이상화되고 규범화한 로맨틱러브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성애조차 사회적 일탈로 취급되어 억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낙인 속에 일종의 성도착으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코가 느끼는 동요는 흔히 사회적 성규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동성애를 지닌 여성의 발현되지 못하는 섹슈얼리티의 고뇌로 해석되며, 또 반대로 오히라라는 남성의 출현으로 인해 사치코와의 동성애에서 벗어나 이성애로 변해가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석하든 기존의 연구는 모두 아사코의 동요를 두 여성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해석의 근거에는 모두 동성애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사코의 마음의 동요를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먼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벗어나 여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의 두 사람이 갖는 정신적 교류와 유대를 동성애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석이 작품 자체의 내용에 기초하기보다는 아사코와 사치코의 실제 모델로 여겨지는 유리코와 요시코와의 관계, 그리고 후에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와의 결혼으로 이성애를 선택한 유리코가 요시코와의 특별했던 감정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작품 자체의 표현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애로 단정 짓기 어렵다. 물론 자전적 소설이라는 특성상 작품 해석에 있어 작가적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그것이 작품 자체의 표현이나 내용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아사코가 작가부부나 단체의 실권자 그리고 인쇄소 사장 등 그들의 남녀관계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남녀관계 자체를 부정하

11) 本多秋五(1979. 2) 「たちろがず見下む一湯浅芳子『百合子の手紙』を読む一, 『すばる』

12) 岩淵宏子(1995) 「レスビアニズムの揺らぎ — 宮本百合子『一本の花』」 『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招待 — 近代女性文学を読む』 學藝書林

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사코가 비판하는 것은 남녀관계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는 육체적 이끌림만이 있는 남녀관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동성애를 바탕으로 해석되는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작품의 표현을 바탕으로 아사코의 동요는 정신적 사랑을 배제한 육체적 관능에의 이끌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사코가 오히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람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아래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사코는 오히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아사코에게 매력적인 것은 오히라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었다. 오히라가 그날 밤 이후 아사코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감각이 아사코를 끌어당겼던 것이다.(pp.41~42)¹³⁾

결혼생활을 경험한 아사코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혼생활은 완전히 끝났으며 사람을 달리 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 재혼할 마음이 없는 것은 오히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재혼할 의사가 없는 두 사람이 서로 자유롭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오히라의 속삼심이 일으킨 ‘감각’ 즉, 아사코의 관능에 그녀는 흔들리게 된다. 그러한 감각은 “잠깐의 불꽃으로 신경이 피곤해진 탓”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려 하나 의외로 아사코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아사코 자신이 그렇게 비난했던 정신적 교감을 배제한 오로지 육체적 끌림이기에 그녀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아사코는 “한 면씩, 밤과 낮으로 나뉘어 그려진 한 장의 풍경화”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분열된 마음을 드러낸다. “추락하고 싶다는 광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자신의 육체적 관능과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아사코의 정신이 그녀의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혼돈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¹⁴⁾

13) 「然し、朝子は大平を愛しているのではなかった。(中略) 朝子にとって魅力あるのは大平という人自身ではなかった。大平がああ夜以来、朝子の心の内にかき立てた感覚が、朝子を牽っぱるのであった。」

14) 아사코의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본문중에서 “나, 둘로 분열될 거야(私二つに裂けちゃう)”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작품 당시의 유리코 일기(1927년 8월 15일)에 “love와 passion의 분열. 나는 요즘 성숙을 느끼고 여성의 개화를 느낀다. 생명이 속에서부터 외친다. 암술이 수술을 부른다. Y에게 나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없다. (중략) Y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과는 별개인 정열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Y의 사랑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고통이다” “격심한 분열의 힘을 느낀다. 또 타락의 유혹을 느낀다. 인간은 때로는 눈을 감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라고 쓰고 있다.

같은 달 16일자 일기에서는 “떨어지고자 하는 충동. 어두운 이끌림.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반동적인 힘으로 짓누르는 이 어두운 인력. 연애가 아니다. 본능의 무서운 리액션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일기의 인용은 『宮本百合子全集』 第二四卷 新日本出版社 1981 p.203)

3.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아사코에게는 자신이 정신과 육체의 분열에서 오는 갈등을 겪고 있듯이 그녀를 둘러싼 사회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특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모순되고 왜곡된 상황을 남녀관계와 연결시켜 표현한다.

아사코가 근무하는 출판사 직원과 인쇄소, 그리고 원고청탁을 의뢰하는 작가 등 일과 관계되는 인물들은 주로 그들의 비뚤어진 남녀관계나 굴절된 부부관계와 더불어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의 왜곡된 인물상은 단순하게 남녀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리, 비양심, 비윤리적인 부분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아사코가 일하는 부인단체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들에게 재봉틀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임은 시중가보다도 훨씬 적을 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이나 고치게 하면서 여성들을 혹사시킨다. 또한 단체의 실권자인 모로토는 기관의 자금을 몰래 여학교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단체 내부의 불온한 공기는 앞서 살펴본 모로토의 청결하지 못한 여자관계와 더불어 묘사되고 있다.

아사코가 인쇄소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창문이라기보다 음산한 생채기 같았다. (중략)

겉으로 보기에다 이미 낡을 대로 낡아, 활자의 무게와 인간의 노동으로 인해 뒤틀리고 부풀어 오른 듯한 건물 안은 어두워보였다. 여공이 이쪽 편으로 열린 좁은 창가를 무슨 일이 있어 지나칠 때에만, 옅은 옥색 빛의 짧은 홀옷 것이 아사코의 눈에 들어왔다. 아사코는 오랜 전에

“언젠가 공장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시조에게 말했었다.

“어느 분께라도 거절하고 있어서 —— 아무래도……너무나 더러워서요, 보신다고 해도” (14)¹⁵⁾

15) 「窓と云うより、陰気な創口のようであった。(中略)

外見既にがたがたで、活字の重さや、人間の労働のために歪み膨らんだ建物の裡は、暗そうであった。女工が、その、こちらに向いて開いた狭い窓際を何かの用で通り過るときだけ、水浅黄の襦袢の衿など朝子の目に入った。朝子はもう余程前、

「いつか工場見せて下さいな」

と嘉造に云った。

「どなたにもお断りしておりますんで——どうも……穢くて仕方ありませんですよ御覧になったって」」

어린 사환에 대한 사장의 추한 행동과 더불어 인쇄소 자체의 분위기나 시설도 어둡고 더러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인쇄 공장의 환경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사장 아들은 낡고 더러운 공장을 창피해 하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사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에 이끌리지 않고 고용인을 다루고 주관을 튀기며 교활한 천성은 장사를 시작한 부친보다도 강한” 그는 아버지에게 당하는 여사환의 고통을 모른척했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아사코는 뒤틀린 남녀관계와 더불어 사회 곳곳의 옳지 못한 상황을 동일 선상에서 표현한다. 이에 대해 간 사토코(菅聡子)는 “아사코의 사회적 현실을 표현하는 언어와 내면의 성적 욕망을 스스로 인정하는 언어라는 서로 위상을 달리하는 언어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문맥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⁶⁾고 논하면서 이런 언어의 혼재는 아사코의 의식과 무의식의 혼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와부치 히로코(岩淵宏子)는 “관능의 개화가 초래한 정신과 육체의 자기분열에 괴로워하던 아사코가 찾은 출구”에 초점을 맞춰 “사랑을 통한 정신과 육체의 통일” 그리고 “사회적 확대 속에서 타자와의 연대를 통한 심신의 자립”¹⁷⁾에의 지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한 송이 꽃』은 주인공 내부의 여성성의 자각과 함께 사회의 모순과 왜곡된 상황을 연결시켜 그려내고 있으며¹⁸⁾ 이는 아사코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사회에 대해서도 눈 떠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사코의 사회에 대한 관심은 “보는 주체라는 특권적인 입장에 안주”하여 “현실사회에 있어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¹⁹⁾ 한계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여행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재탄생한 유리코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가 작품 활동 초기부터 이처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지 않았다 데 초점을 맞춰 이를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는 “아직 사회적 탐구와 개인적 동요를 통일적으로 타개하는 구체적 방향을 찾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개인적 자기 소모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확고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²⁰⁾

16) 菅聡子(2006. 4) 『『一本の花』— 分節化されない言葉』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p.108

17) 岩淵宏子(1986) 『『一本の花』論 — ベルハーレン『明るい詩』の影響を中心に—』 『昭和学院短期大学紀要』 昭和学院短期大学

18) 미야모토 유리코의 문학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 전계주(16) 菅聡子(2006. 4) p.110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는 유리코가 자신의 주변이야기를 작품화하면서도 “창작활동 초기부터 갖고 있던 주의의 넓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으며 이것이 “미야모토 유리코 자전소설이 사소설로 빠지지 않았던 원인”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어서 “『노부코』 후에 쓰인 이와 동일 계열에 속하는 중편 『한 송이 꽃』에는 이와 같은 관심이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²¹⁾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이나 관찰만으로는 현실과 사회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마친 후부터 유리코는 “좀더 과학적, 이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유리코가 소비에트 여행을 거쳐 사회주의로 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분명 유리코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 자신의 삶의 방식, 내면의 성장을 넓은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로 추구”²²⁾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유리코의 작품적 특징이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인텔리 여성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과 사치코를 포함해 일하는 여성에 대한 회의적 사고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사치코가 가르친 적이 있는 여성이 친구와 함께 직장을 부탁하려고 찾아와 나눈 대화로, 당시 여성들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일면을 읽을 수 있다.

“경제상 일이 없으면 곤란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집에 마냥 있자니 좀 그렇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가요?…… 무슨 일에 자신이 있어요?”

스에마쓰는 나란히 앉은 의자 위에서 친구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색한 듯이,

“무슨 일……달리 자신 있는 일은 없지만—, 혹 가능하다면 잡지나 신문 쪽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32)²³⁾

20) 宮本顯治(1980) 『宮本百合子の世界』 新日本出版社 p.68

21) 蔵原惟人(1990) 「宮本百合子の生涯と業績」 『小林多喜二・宮本百合論』 新日本出版社 p.100

22) 津田 孝(1991. 10) 「伸子の成長とリアル리즘の発展」 『文化評論』 p.167

23) 「經濟上、仕事がないけれど困るんですか」

「い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

「家にいても仕方がないというわけですね—? どんな仕事がいいんです? ……何に自身があるんです?」

末松は、並んでかけた椅子の上で友達と互いに顔を見合わせるようにし、間が悪そうに、

「何って……別に自身のあるものなんかありませんけれど——、若し出来たら、雑誌か新聞に働いて見たいと思います」

이처럼 무슨 일에 자신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지만 오히려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통해 독립을 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의 직업이라면 그 직업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좀더 탐구적이지 않으면 거짓이 아닐까. 그저 급료만 받으면 된다, 싫어지면 일을 버리면 그만이다. 그럼 그건, 여자도 남자처럼 똥고 똥왔을 뿐 아니라, 결국 그들보다 일처리가 미숙하고 실통치 못하다는 거잖아요.” (34)²⁴⁾

그러나 아사코는 자신들의 현재의 생활처럼 단순히 여성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나 역시 그저 월급 90엔 받고 할당된 잡지의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 어떤 잡지를 왜 편집하는가, 거기까지 확실한 의지가 작용해야 드디어 인간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35)²⁵⁾

그저 어떤 일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는다면 마치 여성이 독립한 듯이 여기나 아사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직업에 대한 인식과 일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사코가 자신을 ‘초여성문화주의(超女性文化主義)’라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단순히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여권신장이라든지, 여성이라는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인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사코의 고민은 ‘여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머무르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 「自分の職業なら職業が、人生のどんな部分へ、どんな工合に結びついているか、もう少し探求的でなけりゃ嘘なんじゃないのかしら。ただ給料がとれていればいい、厭んなったらその職業するだけだ。それじゃ、つまり女も男なみに擦れて、而も、彼等より不熟練で半人間だというのが落ちなんじゃないの」

25) 「だからね、私だって、ただ月給九十円貰って、あてがわれた雑誌の編輯ができるだけじゃ、生きてもないんだし職業も持つてらんじゃないのよ——どんな雑誌をなぜ編輯するのか、そこまではっきりした意志が働いて、やっと人間の職業と言えるんだろうけれども……」

4. ‘생존의 침단’이 의미하는 것

남녀간의 결혼생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아사코에게 여성끼리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라고 할만한 두 사람의 삶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졌다 하겠다. 그런데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그 생활에도 타성에 젖은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단조로운 생활에 자족하는 폐쇄성과 정체성이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는 사치코라 해도 아사코의 인간적 갈등을 다 채울 수는 없으며 사치코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동경하고 있는 아사코는 그녀에게 의지하던 자신에게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아사코는 묘한 불안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운 기분이 되었다.

사치코가 없어도 괜찮아. 자신의 전후좌우를 스쳐지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아사코는 생각했다. 자신도 고통을 안은 채 이 무리의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아무리 괴로워도 실패해도 인간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으로 있으면 되는 거다. (46)²⁶⁾

사람들로 붐비는 긴자(銀座)의 밤거리를 거닐다 아사코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한순간 그 쇼윈도에 자신과 더불어 비쳐지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이 군중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 아사코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사치코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립이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의 범주를 초월하여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아사코는 “인간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으로서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존의 침단’²⁷⁾이다.

아사코는 인간의 생존의 침단이라고 할만한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인생에는 도덕이나 상식, 교양 등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26) 「朝子は、変な不安からだんだん自由な心持になった。

幸子のいないのもよい。自分の前後左右を通りすぎる夥しい群集を眺めながら、朝子は思った。自分も苦しいまんな、この群集の一人となって生きればよいのだ。どんなにくるしくても、間違っても、人間の裸であればこそだ。」

27) 라·보애티·도·라·비 (불어이며 원어로는 la pointes de la vie)

‘생존의 침단’은 소비에트에서의 생활을 소재로 한 『道標』라는 작품에서도 보이는데, “나무의 끝에 끝이 뾰족한 한 점이 있어 성장이 그곳을 중심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의 진정한 계기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집약적이며 핵이 있다. 원형질을 찌르는가, 거기에서 빛나갔는가에 따라서 자극의 효과는 다르다.”라고 표현되고 있다.

않는 순간이 있다. 또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라 해도 우리들을 둘러싼 상식이나 도덕 등의 권위가 실추된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마음의 의지가 될 것인가. 무엇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구별해 낼 것인가, 그것은 초목에 비유하자면 초목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싹과 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존의 침단에 의해서다. (54)²⁸⁾

아사코는 “방탕한 욕망”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은 이 ‘생존의 침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으로서 건전하고 왕성한 생의 본능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사코 자신이 ‘암호’라고 표현했듯이 ‘생존의 침단’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모호하며, 확실한 소리를 내고 있기 보다는 어렵풋한 이미지로밖에 그려져 있지 않다.

유리코가 자작 해설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여주인공 아사코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사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사코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도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있다”²⁹⁾라고 서술하고 있듯이, 아사코는 아직 자각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어렵풋이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사코가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관능의 혼란으로부터의 탈출구로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생존의 침단”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베르하렌³¹⁾의 『밝은 때(明るい時)』³²⁾라는 시집이다.

ラ・ボアント・ド・ラ・ヴェ

28) 「朝子は人間の生存の尖端というようなことを深く思った。道徳や常識、教養などその人を支える何の役にも立たない瞬間が人生にある。またそういう非常の時でないまでも、我らを取り巻く常識や、道徳や、それらの権威の失墜の間に生きて行くに、何が心のよりどころとなるであろう。何で人間が人間らしく生きて行く道をかき分けるかと言えば、それは、草木で言えば、草木を伸び育てる大切な芽に等しい、人間の心の中にある生存の尖端によつてだ。」

29) 『宮本百合子選集』 第四巻 後記 河出書房, 1956

30)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こ)는 『宮本百合子』(文芸春秋, 1972)에서 『一本の花』에 대해 내부의 미묘한 동요를 느꼈던 유리코가 소비에트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정신적인 동기의 일부분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작가가 자신의 내부에 일어나는 동요에 대해 당시로서는 유리코 역시 그 확실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작가의 불안과 동요가 주인공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Emile Verhaeren(1855-1916). 벨기에의 시인. 낭만주의적 시를 쓰는 고답파로 출발했으나 후에 사회주의의 영향 하에 근대 도시문명의 암울함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32) 『一本の花』에 인용되고 있는 「明るい時」는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가 번역한 작품이다. 베르하렌이 부인을 위해 쓴 사랑의 시집으로 「明るい時」「午後の時」「夕の時」로 이루어진 삼부작의 하나이다. 고타로가 부인 지에코(智恵子)에게 들려주기 위해 전부 번역했으며, 총 30장으로 구성된 「明るい時」는 1921년 芸術社를 통해 간행되었다.

베르하렌은 사회주의의 영향 하에서 근대 도시문명의 애환을 노래하던 시인이었으나, 이 시집은 아내와의 결혼생활의 기쁨을 솔직하게 노래한 사랑의 시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 서로 맺어진다!
같은 사원의 두개의 황금빛 스테인드글라스가
다른 밝기의 불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몸을 꿰뚫으며 어우르듯이.(54)³³⁾

위의 시는 아사코가 깊은 감동을 받은 부분으로 작품 속에 인용되어 있는데, 사랑에 의한 육체의 결합을 통해 혼을 정화시키고 서로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옛 친구로부터, 남편을 잃은 후의 이성 관계를 은근히 질문 받은 아사코가 들연 떠올린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보이는 일구는 다음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신과 같이 성스러운
우리들의 포용으로 우리 두 사람의 무엇인가를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몸을 꿰뚫고, 사랑이 빛날지니,
우리는 함께 육체의 화원에 내려선다. ³⁴⁾

이 구절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포용이 선사하는, 신과 같이 성스럽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관능적이고 정열적으로 읊은 장의 첫 구절이다. 작품 속에 보이는 두 시 모두 사랑에 의한 정신과 육체의 맺어짐에 최상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기리는 사랑의 찬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의 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복도 밖에 한 그루의 석류나무가 자라 있었다. 이런 공공건축의 공터에

33) 「自体を浄めるために結び合う!
同じお寺の二つの黄金の薔薇窓が
ちがった明るさの炎を交えて
たかひに貫きあうように。」

34) 「底知らぬ深さ神のやうに聖い
われらの抱擁にわれら二人の何ものを失はぬため、
又からだそのものを貫いて、愛の輝けかすと、
われらはともに肉の花園に下り立つ。」
전계주(16) 岩淵宏子(1986) pp.36-37에서 재인용

자란 나무답게, 언제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꽃만 흩뜨리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올해는 밑쪽 가지에서 단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떨어지지도 않고 희미하나마 물이 들었다. (중략) 단 하나의 둥근 석류 열매는 무거워 보이는 것이 아사코에게 왠지 좋은 느낌을 주었다.(40)³⁵⁾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작품 속의 말처럼 이 조화가 깨지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 자연의 이치에 따라 열매를 맺은 석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인간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은 미성숙하고 작은 열매에 불과하지만 희망을 갖고자 하는 아사코의 바람이다. 빛나간 남녀관계에 의한 갈등이나 사회의 비리나 모순도 정화시켜줄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랑의 시와 석류에 대한 표현을 통해, 아사코가 이른 ‘생존의 침단’이 바로 인간을 정화시키고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사랑’³⁶⁾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사코는 “사람들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다가도 “한 잔의 커피도 자신들은 사실 많은 발소리와 함께 마시고 있다”고 여기며, 타인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무수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존의 침단’에는 남성과 여성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인간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서로간의 사랑과 연대의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앞의 베르하렌의 시가 부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찬가이자, 이 사랑을 통해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불신, 허무에서 벗어나게 된 시인이 인간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예찬하며 ‘인간 찬미’를 노래한 시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⁷⁾

5. 마치며

『한 송이 꽃』은 미야모토 유리코가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소비에트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작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35) 「その廊下の外に、一本の石榴の木が生えていた。このような公共建築の空地に生えた木らしく、いつも徒花ばかり散らしていた。珍しく、今年は、低い枝にたった一つ実を結んだ。その実は落ちもせず、わずからがら色づいて来た。(中略) たった一つの石榴の実は円く重そうで、朝子に何か好ましい感じを与えた。」

36) 앞의 책(14) p.174 ; 1927년 4월 15일자 일기에서 유리코는 “이 흘러가는 인생의 궤에 이르고 싶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愛-戀을 맛보고 싶은 자신”이라고 쓰고 있다.

37) 大場恒明(2004) 「日本におけるエミール・ヴェルハーレン : 受容史のための基礎作業的序説」 『国際経営論集』 p.3

가의 고민 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유리코의 동요와 자각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유리코 소설이 자전적 작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작가 유리코와 유야사 요시코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동성애와 이성애의 문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후 민주주의 문학의 기수이자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작가라는 사실에 의거,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아사코의 비판 의식을 과잉 포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 자체의 표현과 내용을 바탕으로 두 주제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저해 요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부치 히로코는 여성작가들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참가한 것은 사회주의 실현이 여성의 해방, 남녀평등을 가져다준다고 확신했던 데에 그 동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⁸⁾ 유리코가 프롤레타리아 작가가 된 계기 역시 3년간의 소비에트 여행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서 만난 여성들이 남성과 대등한 삶과 권리를 누린다는 인식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리코가 추구하는 문학적 테마가 ‘자각하는 여성’이라 해도 이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꾸밈없이 진실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데 있다.

자신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관능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응시하며 주인공 아사코는, 베르하렌의 사랑의 시들처럼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생존의 침단’이라는 관념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한 송이 꽃』은 아사코의 내적 갈등도 그리고 여타의 사회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인간’에의 추구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한 송이 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자각하는 아사코의 메타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창조력과 가능성을 믿으며 스스로 역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아사코를 표상한다 하겠다.

이처럼 아사코가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성의 자각을 통해 이르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의 차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생존의 침단’ ‘인간’라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바라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작가 미야모토 유리코의 지향점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8) 岩淵宏子(1988) 「女と言説」 『昭和文学史』一卷 有精堂 p.169

【参考文献】

- 『宮本百合子全集』第四卷・第十八卷・第二四卷(新日本出版社, 1981)
- 岩淵宏子(1986)「『一本の花』論 — ベルハーレン『明るい詩』の影響を中心に」『昭和学院短期大学紀要』昭和学院短期大学
- _____ (1988)「女と言説」『昭和文学史』一巻 有精堂
- _____ (1995)「レズビアニズムの揺らぎ — 宮本百合子『一本の花』」『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招待 — 近代女性文学を読む』学芸書林
- 大場恒明(2004)「日本におけるエミール・ヴェルハーレン : 受容史のための基礎作業的序説」『国際経営論集』
- 菅聡子(2006. 4)「『一本の花』 — 分節化されない言葉」『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 蔵原惟人(1990)「宮本百合子の生涯と業績」『小林多喜二・宮本百合論』新日本出版社
- 津田 孝(1991. 10)「伸子の成長とリアル리즘の発展」『文化評論』
- 平林たいこ(1972)『宮本百合子』文芸春秋
- 本多秋五(1979. 2)「たおろがず見下む一湯浅芳子『百合子の手紙』を読む一」『すばる』
- 宮本顕治(1980)『宮本百合子の世界』新日本出版社

要 旨

『一本の花』は宮本百合子にとって、作家生活の前半期のピリオドとなった作品である。作家として深い疑いを抱きだした百合子が『一本の花』を書いた後、ソビエトへ旅立ち、それからプロレタリア作家へ転換するようになるからである。

十七歳の時、日本社会の悲惨な農村の現実を描いた人道主義作家として登場した百合子は、最初から人間らしい生き方を追求してきた作家であり、『一本の花』にもこのような姿勢がよく見える。本稿はこの点に着目し、人間らしく生きるために欠かせないものとして提示されている「生存の尖端」の意味に注目した。

『一本の花』には、官能の目覚めによる主人公の内面の動揺と矛盾ある社会を見つめる視線という、二つの異なる位相のテーマがあるといわれてきた。本稿では主人公のセクシュアリティと社会の一員としてどう生きていくかを別の問題ではなく、統一した一つの問題として捉え、その解釈を試みた。

其の結果、自分の内面と社会を見つめ、朝子が迎着いた「生存の尖端」とは真の人間として成長するのに必要な真の愛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男女の区別を越えた人間への追求は作家宮本百合子の指向、そのものであるとい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宮本百合子、『一本の花』、セクシュアリティ、生存の尖端、
「明るい時」、ベルハーレン、人間愛、

투 고 : 2012. 8. 31
1차 심사 : 2012. 9. 15
2차 심사 : 2012. 10. 6